

COVID-19와 <자기만의 방>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

-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육아 양립경험을 중심으로

오혜인**·김만준***·이청아****·이학건*****·조예상*****

초 록

COVID-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소외와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엄마대학원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COVID-19로 인하여 돌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해 온 다양한 문제와 외적 제약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학업-육아 양립에 대한 제도적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속 학업 수행 중인 엄마대학원생의 경험을 편견 없이 탐색하고자 문헌연구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이전 엄마대학원생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절대시간의 부족, 정서적 어려움, 나를 돌볼 여유가 없는 모성, 인식과 문화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COVID-19 이후 발생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하였다. 우선 대학 행정·교육 시스템이 전면 온택트(ontact)화 되면서 엄마대학원생의 물리적, 시간적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었으며, 일의 효율이 높아져 추가 소득을 벌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성'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재난 약자로서의 모습이 주되게 발견되었다. 팬데믹 이후 모성에 시간을 쏙느라 가용 가능한 시간자원이 더욱 줄어들었고, 정서적 어려움은 한층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지지자원 유무에 따른 갈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엄마대학원생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학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도록 제안하였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업-육아 양립 환경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COVID-19의 확산 속에서 돌봄의 책임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부연하였다.

주제어 : 엄마대학원생, 스티딩맘, 학업육아양립, COVID-19, 코로나 팬데믹, 다중역할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공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 1 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dazu3000@gmail.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manjunkim@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violet9741@naver.com)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qjatodgkrrjs@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joyesang@snu.ac.kr)

I. 서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들에게 매달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Woolf, 1929/2010). 이는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사유할 시간과 공간’의 확보는 여성이 성장하고 생산성을 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카벤디쉬(Margaret Cavendish)가 “우리(여성)는 박쥐와 올빼미처럼 장님으로 살고, 짐승처럼 노동하며, 벌레처럼 죽는다”며 여성의 소모되는 삶과 교육에의 소외에 분개하였던 시대(Gilmartin, 2016)에 비하면, 작금의 상황은 여성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COVID-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이런 믿음이 어찌먼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학교와 공공 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 COVID-19의 혼란 속에서,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엄마대학원생들의 돌봄 부담은 크게 증대되었고, 관련한 여러 문제들과 제약들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Lofton·Petrosky·Seitelman (2021)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혼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혼남성의 팬데믹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율에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은 유독 급감했으며, 전염병이 특히 모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노동, 학업, 삶 전반의 침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모성 중에서도 공부하는 엄마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지되고 인정받는 활동으로, 제도권 내 포섭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엄마들, 그들의 모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한국사회에서 공부하는 여성들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불모지와 다름없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엄마대학원생’, ‘스터딩맘’, ‘공부하는 엄마’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드러나게 됐다(서정원, 2015b). ‘자기앞가림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은 무책임한 존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쟁이’, ‘팔자가 좋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성, 거부감을 내포하는 프레임은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서정원, 2015a).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의 가치는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부를 하는 여성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심리, 경제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계나 국가정책이 이들의 문제를 노동하는 여성의 그것만큼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팬데믹 상황은 수많은 여성들을 혼란으로 밀어 넣

었다. 교육기능과 함께 돌봄기능을 상당 부분 갖고 있던 학교 시스템이 문을 닫으면서(shut-down), 전통적인 돌봄 주체이던 여성들에게 ‘다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돌봄 주체의 능력과 경제적 여력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격차가 생겼으나, 엄마대학원생의 경우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비해 그 경험과 현상이 알려진 바가 없다. 다중역할로 인한 여러 부담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관련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학계 및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는 단순히 해당 집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 아동의 성장,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차별과 불공정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소외를 받고 있는 엄마대학원생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적능력을 키우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엄마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탐색한다. 더불어,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그들이 경험해 온 다양한 문제와 외적 제약을 드러냄으로써 학업-육아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문헌고찰

1. 엄마대학원생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축적된 서구사회 연구물에 따르면, 엄마대학원생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슈, 정서적 이슈 그리고 다중역할로 인한 이슈들이 있다.

먼저, Lynch와 Karen(2008)은 경제적 어려움이 엄마대학원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정 및 사회에서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엄마대학원생들은 등록금, 강의 자료, 교통비와 같이 자신의 학업 관련 비용과 함께 가족부양 비용, 아이돌봄을 위한 양육 비용 모두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 엄마대학원생의 돌봄 관련 재정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Dokes, 2020). 또한, 양육비 및 학업에 드

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남편에게 전가한다는 죄책감이 함께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Lynch·Karen, 2008).

다음으로, 엄마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경제적 이슈에서 파급되는 정서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정서적 어려움은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정체성은 동료들이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덜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게끔 해(Ridgeway·Correll, 2004; Williams, 2007), 엄마대학원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오명을 쓸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등(Lynch·Karen, 2008) 주위의 편견을 경험하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엄마대학원생은 교수와 다른 동료들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에 빠지기도 하는데(Lynch·Karen, 2008), 이는 엄마대학원생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 혹은 동료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Nettles, 2006).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Fenton, 2020).

끝으로 엄마대학원생은 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역할갈등은 엄마대학원생 한 사람이 짊어지기 너무 많은 역할이거나 다른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한다(Harmon-Jones, 2000). Scharp와 Dorrance Hall(2019)은 학생과 부모로서 다중역할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중되며, 이는 관계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엄마대학원생은 다중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Anaya, 2011),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rikhidko·Haynes, 2018). 실제 너무 많은 역할 요구가 있을 때 역할 과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Etaugh·Bridges, 2006), 아이들과 활동 시 더 많은 피로감에 따라 행복감이 저하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Augustine·Prickett·Negraia, 2018).

역할갈등은 엄마대학원생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까지 한다.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시선은 이들이 워킹맘 혹은 전업주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만든다(Ellis, 2014).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엄마대학원생은 좌절감을 느끼며(Lewis, 1971), 이러한 좌절감은 심각한 신체·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은하 외, 2008).

2. 코로나 팬데믹과 엄마대학원생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성의 돌봄 및 노동문제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들은 소수 존재하지만, COVID-19가 엄마대학원생, 공부하는 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엄마대학원생들이 논의의 장에서 소외, 배제되어있는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Academic Motherhood”와 관련해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의 모성은 대학원생을 넘어서 공부 및 연구하는 여성 모두를 포괄하며, 이에 대한 차별 및 배제 이슈에 관한 관심과 진지함 정도는 우리나라와의 온도 차이가 크다.

Mahajan·Larkins·Pettigrew(2020)은 COVID-19 대유행이 역사상 다른 시기와는 다른 현대사회 남녀의 불평등을 극적으로 드러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9월 사이에 많은 산업에 걸쳐 86만 5천 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떠났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유해하고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 이 시기를 “여성 침체기(female(she)-recession)”로 명명한다. 특히 정규직종보다 비정규직종의 이탈이 큰데, 이러한 결과는 함선유(2021)의 국내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정규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엄마들은 육아 및 자녀의 홈스쿨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학업에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Arnold(2020)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14~18% 적게 연구 실적을 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Nelson(2020)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 역시 COVID-19로 인해 공부하는 여성들에게 불평등이 증대되었음을 다양한 자전적 질적연구, 네러티브의 방식을 통해 상세히 보고했다.

Staniscuaski et al.(2020)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성불이익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장학금, 레포트, 재개정기한 연장, 양육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학교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미국의 우수 대학에서는 엄마대학원생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더해서 여성들의 글쓰기 커뮤니티(Arnold, 2020)라든지, 마르코 폴로라는 APP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Beal, 2020)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능저하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코로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고, online으로 바뀌면서 확보된 물리적 시공간으

로 삶의 일부분이 윤택해졌다는 부분 등이다(Miller, 2020).

그렇다면 한국 엄마대학원생들의 COVID-19 팬데믹 속 학업-육아 양립과 관련한 삶의 경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팬데믹 속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육아 양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해외 중심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는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당사자들이 지닌 욕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인 엄마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상세히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성 정체성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 중인 엄마대학원생 당사자들의 경험을 편견 없이 탐색하는 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COVID-19 이후 엄마대학원생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단초를 얻고 제도적 틀을 구안하고자, COVID-19 이전과 이후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탐색하는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FGI는 연구하고자 하는 이슈에 맞는 동질적 집단을 모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집합적으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형식을 지닌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그리고 때로는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교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강점도 있다. COVID-19가 엄중했던 2020년 12월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ZOOM 화상 FGI방식을 채택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2년 이상 학업을 수행한,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들이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제언이

국내 타 대학 엄마대학원생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문제를 가장 잘 진술할 수 있을 만한 참여자들을 눈팅이 표집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최종 FGI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9명이었다.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각 3-4명으로 구성된 FGI를 2021년 1월 매주에 걸쳐 3회기 수행하였으며, 1회기당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대상	연령	입학년도	학위과정	소속단과대학	자녀
A	30대	2015	박사수료	사회과학대학	아들 6세 아들 5세
B	40대	2013	박사졸업	사회과학대학	아들 7세 아들 4세
C	30대	2019	박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아들 6세
D	30대	2020	박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아들 4세
E	30대	2020	석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아들(중증장애) 12세 딸 5세
F	30대	2013	박사수료	생활과학대학	딸 6세
G	30대	2018	박사수료	사범대학	아들 5세
H	30대	2015	박사수료	환경대학	딸 5세 딸 3세
I	40대	2010	박사졸업	사회과학대학	아들 11세

FGI 실시애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배경과 목적, 수행 방법, 참여에 대한 자발적 선택과 중간 철회 권리, 비밀보장 및 인터뷰 녹음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연구참여자 동의 취득 과정과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풍부한 질적연구 경험과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훈련받은 연구진들으로써 수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본 연구에 투입하기 위해 축어록을 작성한 뒤, 각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인터뷰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FGI 질문내용

질 문 내 용
1. 대학원 생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 (평균적인 등교 횟수, 자녀와 보내는 시간- 평일, 주말 구분, 기타 여가 시간)
2. 24시간 중 본인의 연구(논문)에 쏟는 시간과 몰입도는 어떠한가? (강의, 프로젝트, 육아, 일상 등과의 비중 차이)
3.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몰입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주로 어떤 사람들, 상황들이 영향을 주는가?)
4. 육아로 인해 놓친 기회나 학업 지속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대학원 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 학업과 육아를 양립하면서 느끼는 본인의 정체성 등;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주세요)
5. 엄마대학원생으로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린이집, 가족생활관, 육아휴학 등; 상담센터 등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기관 이용경험 등) 또한, 어떤 도움들이 더 있기를 바라는가? (학사지원, 재정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등)
6.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나의 연구와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긍정/부정적인 면 등)
7. COVID-19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들을 돕는 주변의 자원들은 무엇이었는가? (어린이집 긴급보육, 재택근무 등)
8. COVID-19 상황 속에서 가족, 지역사회, 학교, 국가 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왔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아동수당, 긴급지원 등)
9. COVID-19와 관련해 학교 및 사회정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어야 할까?

3. 자료분석방법

질적 자료 분석은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 및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범주적 결집, 직접적 해석, 패턴매칭,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제시한 Stake(2005)의 해석방법을 차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분절시켜 명칭을 부여하는 ‘개념 명명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공통적인 개념들끼리 묶어 ‘범주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참여자 신분의 노출, 동일인의 중복되는 어절이나 표현에 대해서만 연구자가 최소한의 수정을 진행하고 가급적 원문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코로나 팬데믹 하 서울대학교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에 대한 FGI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은 소주제들을 이끌어냈다.

〈표 3〉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육아 양립에 영향을 미친 COVID-19의 영향

일상적 상황 (COVID-19 이전)		COVID-19 이후 상황		
경제적 어려움		① 기득권자가 된 엄마대학원생	② 재난약자로서 엄마대학원생	시간자원이 ‘더’ 감소
절대시간의 부족				더욱 심화된 정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불안과 역할갈등			
	죄책감			지지자원 유무에 따른 다양한 갈등
나를 돌볼 여유가 없는 모성				
인식과 문화 부재				

1. COVID-19 이전의 일상적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엄마대학원생들은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 자신의 학업을 위해 들어가는 고정적 비용과 더불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돌봄비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터디맘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던 것과 상통한다(Lynch·Karen, 2008; Dokes, 2020). 다만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보편적 보육수당(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으로 아주 기본적인 돌봄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학내 다양한 프로젝트나 강의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타개하고자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편도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수입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니까 막 이모님을 만날 오시게 하는 것도 사실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인 면에 대한 걱정도 연구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가령, 첫째가 커가니 이제 이사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들... (연구참여자 I)

여기 두 엄마들은 남편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데, 저희 남편은 같은 학생이에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 지속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G)

2) 절대시간의 부족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 수가 많거나, 주변에 지지자원이 부족한 경우 시간 부족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다수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강의 등의 외부활동을 수행하였는데, '학업, 육아, 일'의 삼중주(三重奏) 속에서 다중역할을 다하느라 극심한 시간 부족이 야기되었다. 더불어, 육아와 유급 노동에 쏟는 시간으로 정작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실제로 학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으며, 학업 및 경력에 있어 낮은 성과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Augustine·Prickett·Negraia(2018)에 따르면 엄마대학원생은 전업주부에 비해 하루에 23분 육아 활동에 덜 신경 쓰고, 여가시간을 하루에 53분 더 적게 보내며, 23분 더 적게 잔다. Hibel·Trumbell·Mercado(2014)은 엄마가 근무하는 날과 근무하지 않는 날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엄마가 일하기 위해 일찍 기상하는 것은 자녀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다양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는 엄마대학원생이 학업 중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졸업이 자꾸 늦어지는 걸 깨달았을 때 좀 우울했어요. 그리고 육아와 학업 모두 잘하려면 저의 수면시간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연구참여자 A)

정말로 살기 위해 밥 한 손가락 먹는 것처럼...막판 시험 전에 제출을 위해서, 밥 한 손가락 먹기 위해서 가서 아이들 맡겨 놓고 해서 제출하고 그랬던... 정말 하루살이 인생이었죠. 하루 딱 그 1시간. 그 2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연구참여자 D)

3) 정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등과 같은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며,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드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 상대적 박탈감, 가족 간 갈등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엄마대학원생들은 다양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경제적 이슈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불안은 물론, 미래의 커리어에 대한 불투명함, 졸업에 대한 막연함, 집단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불안이 그 예다. 한 참여자는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무리

하게 일찍 복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동료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어정쩡하게 11월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렇게 둘째를 낳고 3주 만에 복귀했어요. 제왕절개를 해서 배에 수술자국이 빨갛게 보이는데에다, 앉는 것도 힘들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애 낳은게 유세야? 왜 똑같이 안 하는 거야?’ 흑시라도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더 독하게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과제도 꼬박꼬박 냈던 거 같아요. 출산 후 처음으로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학교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운모에 식은 땀이 짙짙 흐르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무 창백했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학교를 다녀서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A)

한편, 학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부부간, (시)부모-자식 간, 부모-자녀 간의 지속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공부’라는 과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을 잃어버린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원 생활을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으로 이해하는 외부 시선으로 인해 엄마대학원생은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혹은 전업주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며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다(Ellis, 2014). 이들은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받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이러한 좌절감은 심각한 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Lewis, 1971). 김은하 외(2008)의 연구에서는 다중역할을 경험한 기혼 여자 대학원생들의 신체·심리적인 소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다양한 소진 경험을 서술하였다.

친정 엄마는 기본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왜 힘드냐 약간 이런 마인드. 너한테 돈을 벌어오기를 하냐. 돈을 벌어오라고 하기를 하냐, 당장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직업을 가지라고 하기를 하냐. 뭐 너 하고 싶은 공부 하는데 뭐가 힘드냐. 졸업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얘 기하다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깐. (연구참여자 F)

또한, 엄마대학원생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 죄책감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Sutherland (2010)가 언급하였듯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과의 간극에서 오는 자기 불일치에 대한 죄책감이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 되지 못함에 대한 커지는 불안과 걱정은 완벽한 어머니와 완벽한 대학원생의 이데올로기 부조화

를 나타내고 죄책감을 가져온다. Polasky와 Holahan (1998)이 주장했던 자기 불일치 이론은 실제 자아가 이상과 불일치하게 인식된다고 가정하는데, 자기 불일치와 죄책감은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고, 극심한 죄책감은 우울증 증상과 완벽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Kim·Thibodeau·Jorgensen, 2011).

차라리 일이나 할걸. 공부가 내 적성이 맞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오래 학교에 다닐 줄도 몰랐고... 하루에도 열 두 번씩 그만둘까 생각이 들어요. 졸업한다고 뭐 밝은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참여자 F)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은 죄책감의 형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적 이념과 자기희생적 모성에 대한 기대는 엄마대학원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엄마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Williams, 2007). 이러한 문화적 기대는 엄마대학원생이 가정 밖에서 일할 때 육체적,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또한 Liss 외의 연구(2012)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모성이 감당하는 주류 문화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상적인 엄마’는 아이를 위한 우선 양육자가 됨에 따라 양육에 있어서 시간, 에너지, 자원을 오롯이 지원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만든 이상적인 엄마에 대한 강요 아래 엄마대학원생들은 자신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하느라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진다(Markle, 2015). 학업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자녀들을 돌봄 서비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 등 많은 원인이 엄마대학원생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엄마표~’로 구분되는 자녀돌봄 및 교육 활동을 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는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되뇌거나, 친정 부모님께 돌봄을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노인들의 체력과 시간을 갉아먹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엄마표 국어... 엄마표 영어.... 물론 시간은 있죠. 근데 내 아이를 위한 시간은 없어. 내 공부, 내 연구, 내 논문, 내 회의 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런 엄마표를 할 시간이 어딴겠어? (연구참여자 B)

제 주변 사람들의 일정을 빼먹는 게 되는 상황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정을 모으다 보면 제가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 되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의 시간과 체력을 갉아 먹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C)

4) 나를 돌볼 여유가 없는 모성

정서적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중역할에 매몰된 엄마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심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욕구를 비롯한 다양한 감정들을 혼자 해결하거나 유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할갈등을 겪는 여성에게 우울증 및 (낮은) 삶의 질에 관한 전반적인 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Tiedje et al., 1990)을 참고할 때, 다중역할로 겪게 되는 엄마대학원생의 역할갈등은 엄마대학원생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우선적 욕구, 높은 삶의 질,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미루어둔 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잔뜩 긴장된 상태로 반복된 일상을 지내고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닥친 게 있잖아요. 앞에 닥친 게. 공부도 해야 하고, 애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돼요. 살림이라 하면 밥하고 먹이고 치우고 설거지, 빨래하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일러가 얼어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로 지금 말리다가 들어왔는데, 보일러가 녹아야지 애들 씻기고 밥 먹고 치우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내 정신건강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갑자기 뭔가 흑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죠. (연구참여자 D)

5) 인식과 문화 부재

대다수의 엄마대학원생들은 대학 내 차별적 인식과 모성에 대한 몰이해로 소외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성 시설물(도서관, 연구실 등) 이용을 거부당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갈 때 따라붙는 시선에 부담을 느꼈다. 또한 프로젝트나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저녁 시간에 일정이 잡히면 불참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실습 얘기 나와서 말인데, 실습도 육아하는 엄마들이 할 실습지가 너무 없어. 육아를 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파트나 주말시간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아는 어떤 분도 애가 둘이 있는데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실습지도 되게 없는데 그 실습지에서는 완전 풀타임을 요구를 하는 거지. 아홉시부터 여섯 시까지...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 다양성이나 선택권이 없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인거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B)

모임도 있고 프로젝트도 이렇게 저렇게 걸쳐져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정을 잡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정을 잡을 때 엄마가 아닌 사람들의 일정은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좋은데. 저는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낸 그 사이에 가능한 건데...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 내가 아이를 보낸 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난감한 부분이라, 저녁 시간에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 하면 그때 멀리 계신 친정엄마를 호출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C)

특히, 이러한 문화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교수와 동료들의 반응 및 상호작용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대학원생은 교수와 다른 동료들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Lynch·Karen, 2008). 이는 엄마대학원생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 혹은 동료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다(Nettles, 2006). 임신한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담되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신입생 환영회에 한 교수가 아이를 데리고 참석하자 몇몇 엄마 학생들이 아이를 데리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누리고 네트워크를 경험했다는 서술까지, 그 스펙트럼이 학과 내 분위기별로 상당히 넓다. 불완전한 네트워크는 결국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기회를 제한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므로(Fenton, 2020),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도 후진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타산지석 삼아, 엄마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 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간에 임신을 했었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과에 여자분들도 잘 없고. 공대인지 자연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험실이니까. 그리고 임신했다는 걸 아예 교수님한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교수님이 이 친구가 임신 초기였는데 ‘너 이번 학기에 졸업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막 새고 임신 초기인데 죽을 듯이 해서 겨우 졸업논문을 쓰시고 막 이러시는 거 보고 ‘진짜 너무 힘들겠다’ 실험실 환경이 임신부에게 되게 안 좋은 환경인데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배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가 임신인 걸 아예 숨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연구실 안에서. (연구참여자 I)

예전에 S과 신입생 환영회였나봐요. 교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신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저랑 몇몇 대학원생이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도 참여하고, 신입생들과 안면도 트고. 덕분에 아이 낳고 학과 행사에 처음 참여했는데, 소속감을 느끼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 COVID-19 이후 발생한 변화들

COVID-19로 말미암아 평범한 일상이 파괴되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에 반하는 봉쇄와 격리라는 단어를 매 순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감염병은 단순한 위협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재난’으로서 규명되고 있다¹⁾. 이때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속 사회적 재난은 단순한 자연 재난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은 더욱 취약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재난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게 되어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성은 사회계층화와 불평등의 산물이기에 사회계층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다양한 인구·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Cutter·Emrich, 2006).

이때 ‘성별’은 재난 불평등의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Larrance·Anastario·Lawry, 2007). 엄마대학원생들은 COVID-19 상황 아래 재난기득권과 재난 약자로서의 두 가지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온택트로 인한 자유세계를 기득권으로서 전유하는 엄마 대학원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녀 노소 모두에게 커다란 일상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곧 학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기존의 지식 전수 및 공유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면 대체되며 대학 행정·교육 시스템의 전면 온택트화(ontact)를 가져왔다.

원격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다중역할을 하느라 물리적인 공간·시간적 자원들을 쪼개 쓰곤 했던 엄마대학원생들이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물리적, 시간적 에너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학교랑 집이 좀 멀거든요. 씻고, 옷 입고, 이동하는 시간들이라든지, 피곤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소모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Zoom만 열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큰 변화죠. (연구참여자 C)

1)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가축 전염병과 함께 ‘감염병’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 유형 중 후자인 ‘사회재난’에 속하도록 분류하고 있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20957#0000>

박사 수료생들 가운데에는 외래강사, 프로젝트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업무의 핵심적인 기능들만 남고 부수적인(회식, 이동 등) 요소가 사라져 일의 효율이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환원된 시간을 또 다른 노동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기대치 못했던 소득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신세계조. 이런 세상이 있었나 싶더라구요.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면 프로젝트 팀원들이 매번 세종시까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러 왔다갔다 했었잖아요? 왔다갔다 왕복시간 5시간에, 회의하고 밥까지 먹으면 그날 하루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몸도 힘들지만 (아이 하원시간인) 6시까지는 돌아오려고 눈치 보면서 동동 거리는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니터를 열고 버튼 눌러 회의 참여하고 모니터를 덮어버리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연구참여자 D)

강의하러 가는 길이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door to door로 왕복 3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어요. 6시간을 내리 강의를 하고 나면 정말 목이 쉴 지경이었죠. 그런데 비대면이 되니 수업시간도 75분으로 줄고, 클릭만 하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는. 일과 관련해서 남는 시간들이 생기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제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연구참여자 A)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이런 Ontact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 원격근무와 관련한 전수조사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Dingel과 Neiman (2020)의 연구를 통해 이를 추론해볼 수 있다. 직업별 업무 환경과 특성을 바탕으로 15개의 분류 기준(물리적 환경과 육체적 특성, 이메일의 활용, 대면접촉 필수 여부, 기계조작 여부 등)을 활용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구분한 결과, 전체 직업군의 36%만이 이론적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인식과 문화, 환경에 따라 이 비율은 더 적어질 수 있다. 즉,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하며 소득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직업군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생 혹은 연구자의 직무적 특성 및 서울대학교라는 지위적 특성의 결합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가계소득이 줄어들며 저소득 육체노동자들의 감염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오늘날 상황을 비추어볼 때, 특수한 ‘기득권’ 계층으로서의 자유세계를 전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성이다.

2) ‘모성’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재난약자로서의 ‘엄마’대학원생

‘재난약자’란 “재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재난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계층”으로 정의된다(강희숙, 2021). 재난이 일어날 때, 여성의 피해가 큰 것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연관이 깊다. 가정 내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 시에도 마지막까지 가정에서 이들을 돌본다. 그래서 재난 시 응급탈출 및 대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남성보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Larrance·Anastario·Lawry, 2007).

본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자연재해뿐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해 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팬데믹과 관련한 엄마대학원생들의 서사 속에서는 아이돌봄과 관련한 주제 즉, ‘모성(母性)’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거론되었다. 모성은 페미니즘 정치에 있어서 매우 양가적이고 논쟁적인 영역으로(Vogel, 1993), 초기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를 ‘강제적 이성애’가 바탕이 되기에 거부해야 할 사회적 숙명으로까지 여긴 적이 있다. McNay(1992)는 모성이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주요 체제’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여성 정체성의 요새’로서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성을 강조하면서 결코 젠더 평등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조은(2010)은 모성이란 패러독스와 딜레마라는 단어와 함께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기득권으로서 부여받게 된 시간적, 물리적 유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잉여의 시간과 에너지는 안타깝게도 여성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쓰이지 못했고, ‘모성’이라는 패러독스 가득한 이름 하에서 짓이겨졌다. 팬데믹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봉쇄되자 자녀의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엄마대학원생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집에 머무르거나 돌봄 공백을 홀로 떠안아 버렸기 때문이다.

남편요? 사실 코로나 전이나 후나... 아무 변화가 없었죠... 재택근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혼자... (연구참여자 A)

재택근무를 했어도... 하루 일 해서 마무리하고 보내야 할 자료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왔다갔다 못하게 문을 잠궈놓고 일을 하더라구. 밥 시간에만 얼굴 봤어. 삼시세끼 밥 차리느라 혼이 났지 뭐. (연구참여자 B)

(1) 팬데믹 이후 모성(母性)에 시간을 쏟느라, 가용 가능한 시간
자원이 ‘더’ 줄어들

엄마대학원생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시간 부족을 경험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내음을 가득 품은 팬데믹의 상황으로 돌봄 과업을 남성 대신 더 지게 되었다. 여성들이 가용 가능해진 자신의 시간 자원을 ‘모성’에 투자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있어 아이들의 학교가 봉쇄(shut-down)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노동도 동시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 노동을 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이와 정서적 거리감이 더 가까운 여성’인 엄마대학원생들의 시간과 노력이 모성(母性)이라는 이름 아래 소모되었다. 실제로 COVID-19 상황은 전 세계에서 업무와 가족 간의 경계를 희석하고, 육아 등 가사 노동에 대한 여성 중심의 성차별적 의무 부담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ui Ding·zhu, 2021). 독일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육아와 홈스쿨링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는데(Adams-Prassl et al., 2020),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육아, 홈스쿨링이라는 과업을 감당해내기 위해 본인의 시간과 장소를 내어주고 있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심화된 학업과 육아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엄마대학원생들에게서도 포착된 것이다.

2.5단계 되면서는 나는 아예 0시간. 아무것도. 거기다 나는 남편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평일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F)

코로나 이전에 가용시간이 한 다섯 시간 정도였다면... 코로나 이후엔 개인적으로 연구에 쓰는 시간이 짧으면 1시간, 2시간 요렇게였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SNS보면... 다들 아이들이 시설에 안가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홈스쿨이 유행이에요. 누구는 ‘한글떼기’를 했네... ‘덧셈’을 들어갔네... 경쟁적으로 올리기 바빠요. 엄청 신경쓰이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마음이 조금해지고, 막 따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가정일이나 애한테 시간을 쓰다보니 내 시간은 사라져버려요. 정작 내 논문은 길을 잃어버린... (연구참여자 A)

Wright와 동료들은(2020) 양육 의무가 창의적인 지식의 재생산 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국 학계 속 여성의 성과 및 연구 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없는 대학원생이나 배우자와의 연구 성과 사이에서 큰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데(Hermann·McFall., 2020), 실제 (Cui·Ding·

zhu, 2021)의 연구에서 여성의 학회지 투고 건수는 확연히 줄었지만 남성은 오히려 늘었음이 밝혀졌으며, 12살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가장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Staniscuaski et al., 2020; Guatimosim, 2020에서 재인용). 하버드 경영대학 등이 사회과학계 아카이브 출판 전(前) 논문을 분석한 결과, COVID-19 상황 이후 25개국 18개 분야 41,858건의 연구 중 미국에서 여성 연구자의 연구 투고가 남성에 비해 14~18% 감소하였다(Cui·Ding·zhu, 2021).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COVID-19 상황 속에서 자녀에 대한 주 양육·돌봄제공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스스로의 학업·연구 시간은 침해되어왔고, 무자녀·남성 대학원생에 비해 업무 성과에도 차질을 빚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는 엄마들과 미스(Miss)이거나 혹은 남성이거나 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하는데 소요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이 확 차이가 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더 차이가 나면서 싱글이나 남성들과의 격차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코로나 시대에 힘든 거 얘기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제도 말했지만 직장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돈도 벌고 그대로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안그래도 플러스인데...그러면 대학생생 엄마는 공부도 못 하고, 집에서 애 보고... 이 사람은 계속 마이 너스란 말이에요. (연구참여자 G)

(2) 더욱 심화된 정서적 어려움들

COVID-19 상황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 엄마대학원생들의 경우 시간 부족과 성과하락이라는 결과를 마주했다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활용해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자신이 모성을 충분히 쏟지 못했다는 죄책감, 직접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긴급돌봄을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최대한 지금도 12월은 조금 조심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됐죠. 이 정도 보내고 2학기에 들어서는 최대한 돌봄을 보내고 그 시간에 저도 이제 학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적응은 조금 힘들어요. 그게 딱 앉아서 집중해서 몰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고 그 와중에 보내고도 죄책감, 안 보내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E)

COVID-19 상황은 엄마대학원생에게 양육을 넘어 자녀의 격리 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임하게 하며, 이에 따른 본인의 스트레스·정서 관리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Hermann·McFall.,2020).

돌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를 엄마들이 주로 하고 있고. 등·하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관련된 공지를 확인한다든지, 준비한다든지,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돌봄의 관리인데 그 부분이 코로나 후가 훨씬 가중된 거 같아요. 돌봄 자체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의 것을 얘기를 하자면. 그게 주로 돌보는 여성들에게 가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다음 날 어린이집이 폐쇄가 된다 하면 그걸 확인하는 건 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니지하는 것도 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3) 지지자원 유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

COVID-19 상황은 어린이집 외의 다른 가용자원이 없는 엄마대학원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았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족 자원이 서울에 없는 경우 ‘긴급’하게 돌봄을 맡길만한 공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체력적, 심리적으로 방전되는 상황을 겪었으며,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성과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는 부부 갈등이나 부모에 대한 섭섭함 등으로 이어져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거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 같아서 남편 자원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애가 자원이어야 돼? 아니야 그는 나랑 같은 양육부담자야 나랑 같은 입장이어야돼~ 근데 왜 근데 애가 내 자원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연구참여자 G)

저는 이제 가족 자원이 없었고 제가 친인척이나 친정 부모님이 일단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랑 아들이랑 이제 둘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학기에는 긴급 보육을 안 보내고 가정보육을 거의 통째로 하면서 많이 내려놔있던 것 같고... (연구참여자 C)

힘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큰 아이가) 센터에 반나절만이라도 지내다 오면 좋은데.. (중략) 교수님이 제안하신 프로젝트를 못하겠습니다... 고사하고 돌아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연구였는데. (연구참여자 E)

갑작스런 양육공백 상황에서 돌봄을 대신 담당할 남편, 친정, 시댁 어른들은 매우 중요하고 든든한 지지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거나, 상당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과정에서 안전(코로나 감염 등)이나 경제적 이슈(손주의 TV 프로그램 유료 결제, 난방비, 식비 갈등 등)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자기가 건강적으로 위협받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세요. 어디 갔다오면 싫어하세요. 오래 머무르는 것도 안 좋아하시죠. 너네 집에 빨리 가라고. 너희 때문에 TV(결제)도 가스비도 돈 더 나오고. (연구참여자 A)

V.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서울대학교 엄마대학원생의 COVID-19 전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이를 둘러싼 외적 제약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자료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라인 FGI를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엄마대학원생은 COVID-19 상황 이전부터 학업-일-출산·양육을 동시에 감당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절대적 시간의 부족, 정서적 어려움,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은 공부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신세계를 누리는 재난 기득권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엄마대학원생들은 돌봄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다. 즉, 공부하는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성(母性)’으로 귀소(歸巢)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돌봄의 최전선에 선 재난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COVID-19 이후 엄마대학원생들에게 나타난 어려움은 갑자기 생겨난 어려움이 아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이 COVID-19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전화위복(轉禍爲福) 삼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향후 엄마대학원생들을 위해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에서 제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COVID-19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제시해본다.

첫째로, 단기적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학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먼저 도서관 내 자녀 출입 금지와 같이 엄마대학원생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엄마 대학원생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욕구에 맞춰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학사조정 및 기간 연장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시카고, 스탠포드 대학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겪는 대학원생들이 과제·페이퍼·시험 등 과목 이수 조건에 있어 교수 및 학과장과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UC버클리 대학은 출산 여성에게 논문자격시험, 학위 취득에 대한 기간을 휴학과 별도로 최대 1년 유예하기도 한다(김혜란 외, 2015). 이처럼 수업 시간 조정이나 과목 이수, 기간 연장 등 엄마대학원생의 욕구를 반영하는 학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학내 공식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엄마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가족지원센터’와 같은 학내 공식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혜란 외(2015)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별도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가족지원센터는 대학에서 제공 중인 가족 대상 서비스를 망라하여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 MIT 등에서도 부모학생회를 공

식적으로 지원하여 이메일 리스트 및 웹사이트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간 서울대에서는 맘인스누와 같은 자조모임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맘인스누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단체의 흥망에 따라 논의와 소통의 역량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적인 학내기구로서의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중기적 차원에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엄마대학원생들의 지속가능한 학업-육아 양립 환경구축을 위해 장기적 차원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엄마대학원생들이 양육과 학업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Miller, 2020). 따라서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 문화·인식 변화를 위한 지원, 다학제간·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방면에서의 개혁이 요구된다. 엄마대학원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버드나 MIT, 프린스턴 및 스탠포드, UC버클리 대학 등 해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모두 부모 대학원생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기준에 따라 2,000 ~5,000달러에 이른다(김혜란 외, 2015).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자녀 1명당 1,000달러씩 육아수당을 주고 있다(윤석민, 2014). 이처럼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돌봄 인력 급여를 지원해주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학제간·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시카고 대학의 경우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프로그램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학과 및 아동가족학과가 학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실습 과정으로 꾸려나간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엄마대학원생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녀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OVID-19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1년 12월 현재,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도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하루 8천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COVID-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엄마대학원생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악화된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이 돌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령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일정 수준의 재난휴가 혹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긴급법안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 제도나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 재난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엄마대학원생 중에는 이혼 후 돌봄을 수행할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아동을 혼자 돌보느라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사례(김중현, 2021)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제공하지 못했던 장애아동 등에 대한 긴급 틈새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기존인력을 활용해 적시에 제공했던 이는 돌봄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에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엄마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에 대한 논의가 고려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볼 수 있다. 가령,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경우 도제 방식의 랩(lab)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인문·사회계열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대학원생에 비해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받는 부담의 형태나 수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엄마대학원생들의 보다 다양한 환경을 포착하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구대상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엄마대학원생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지니는 재정적, 상징적 특수성 때문에 이 연구의 사례를 우리나라 전체 엄마대학원생의 논의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내 최고의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연구중심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서울대학교에서조차 엄마대학원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보다 인식 및 인프라가 낙후된 다른 학교에서의 상황은 더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쩌면 다른 학교에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이슈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 엄마대학원생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invisible)’ 소수로서 정치적인 힘을 갖지 못했거나, 여성의 공부라는 것이 재정, 시간 및 돌봄 자원이 매우

풍부한 특권층들만의 전유물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 많은 보통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공부와 연구에서 평등한 기회를 얻고 온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엄마들이 수적으로 많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책 인큐베이팅을 진행해 좋은 모델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서울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자치활동을 동력 삼아 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교내시설의 동반 이용, 스터딩맘을 위한 그룹상담 프로그램, 수유실의 확보 등 다채로운 변화들을 이뤄왔으며, 관련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²⁾. 다만 일종의 정책 모델링을 통해 변화된 제도 및 스터딩맘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노동'만 강조되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뛰어넘어 여성의 공부, 여가, 봉사, 창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도 독려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언급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이었던 엄마대학원생들의 삶을 다양한 문헌연구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세계로 끌어올렸다. 여성들이 연구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방〉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COVID-19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며 감염병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점에서 이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더해서 수시로 '방'의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돌봄의 이슈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지닌 독특한 가치로 여겨진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돌봄의 주체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중역할의 그늘 속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지속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이바지하길 소망한다.

2)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부모대학원생을 위한 교내 제도 및 서비스 브로셔』
https://hrc.snu.ac.kr/board/academic_material/view/5565

참고문헌

- 강희숙(2021). “‘재난약자’ 담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우리말연구*. 제66권. 107-132.
- 김은하·임연옥·박경숙·김남영(2008).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 과정”.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113-125.
- 김종현(2021.06.16). “대구사회서비스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59>에서 2021.12.16 인출.
- 김혜란·강혜진·전이영·오수미·박미진·이진화·심예리·서정원(2015). 대학의 부모 학생 사례연구에 기반한 여성전문인력의 사회적 경쟁력 제고.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 서정원(2015a). *엄마대학원생의 SNS 커뮤니티를 통한 역량강화 경험- ‘서울대부 모학생조합 맘인스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술지*.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서정원(2015b).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연구*. 제89권 제2호. 83-118.
- 울프, 버지니아(2010). *자기만의 방*. 이지은(역). 서울:웅진출판사(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Hogarth Press, 1929).
- 윤석민(2014. 6. 26.). “아기 안고 도서관... ‘스터딩맘’ 서울대를 바꾸다.” *중앙일보*. <https://mnews.joins.com/article/15073677#home>에서 2021. 2.20. 인출.
- 조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69-95.
- 함선유(2021). *코로나19 이후 청년 노동시장*. 2021 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한국 사회복지연구회 발표자료.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21). *서울대학교 부모대학원생을 위한 교내 제도 및 서비스 브로셔*. https://hrc.snu.ac.kr/board/academic_material/view/5565에서 2021.12.16 인출.
- Adams-Prassl, A., Boneva, T., Golin, M., & Rauh, C. (2020).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1-33.
- Anaya, R. (2011). Graduate student mothers of color: The intersectionality

- between graduate student, motherhood, and women of color in higher education. *Intersections: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Review Across Disciplines*, 9, 13-31.
- Arnold, C. H. (2020). Balancing early days of motherhood and academia during COVID-19: Creative wri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ntistasis*, 10(3), 1-9.
- Augustine, J. M., Prickett, K. C., & Negraia, D. V. (2018). Doing it all? mothers' college enrollment, time use, and affectiv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4), 963-974.
- Beal, H. K. (2020). Surviv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a wolf pack and the Marco Polo app: From academic motherhood and COVID-19. *Journal of the Motherhood Initiative*, 11(2), 1-12.
- Cui, R., Ding, H., & Zhu, F. (2021). Gender inequality in research produ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anufacturing &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1-20.
- Cutter, S. L. & C. T. Emrich. (2006). Moral hazard, social catastrophe: The changing face of vulnerability along the hurricane coasts. *Annals,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4(1), 102-112.
-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okes, K. (2020). The challenges graduate student mothers face and the strategies they use to overcome and persist [PhD Dissertation]. Saint Louis University.
- Ellis, E. G. (2014). You must be superwoman! How graduate student mothers negotiate conflicting roles [Ph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Etaugh, C., & Bridges, J. S. (2006). *Women's lives: A topical approach*. Pearson Allyn and Bacon.
- Fenton, T. M. (2020). The impact of counseling program faculty on graduate student mothers [PhD Dissertation]. Lindsey Wilson College.
- Gilmartin, S. (2016. December 10). Margaret the first review: The life and times of 'Mad Madge' Cavendish. *IrishTimes*.

- https://www.irishtimes.com/culture/books/margaret-the-first-re-view-the-life-and-times-of-mad-madge-cavendish-1.2890709에
서 2021.2.20. 인출.
- Guatimosim, C. (2020). Reflections on motherhood and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women's scientific careers. *J Neurochem* 2020(155), 469-470.
- Harmon-Jones, E. (2000). Cognitive dissonance and experienced negative affect: Evidence that dissonance increases experienced negative affect even in the absence of aversive consequence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2), 1490-1501.
- Hermann, M. A., & McFall, C. (2020). COVID-19, academic mothers, and opportunities for the academy. *Academe Washington*, 106(4), 37-39.
- Hibel, L. C., Trumbell, J. M., & Mercado, E. (2014). Work/non-workday differences in mother, child, and mother-child morning cortisol in a sample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Early Human Development*, 90(1), 1-7.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1), 68-96.
- Larrance, R., Anastario, M. & Lawry, L.(2007). Health status amo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Louisiana and Mississippi travel trailer park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49(5), 590-601.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The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Liss, M., Schiffrin, H. H., Mackintosh, V. H., Miles-McLean, H., & Erchull, M. J.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antitative measure of intensive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621-636.
- Lofton, O., Petrosky-Nadeau, N., & Seitelman, L. (2021). Parents in a pandemic labor market.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1-04.
- Lynch & Karen D. (2008). Gender roles and the american academe: A case study of graduate student mothers. *Gender and Education*,

20(6), 585-605.

McNay, L. (1992). *Foucault and Feminism*. Cambridge: Polity.

Mahajan, U. V., & Larkins-Pettigrew, M. (2020). Racial demographics and COVID-19 confirmed cases and deaths: a correlational analysis of 2886 US coun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42(3), 445-447.

Markle, G. (2015). Factors influencing persistence among nontraditional university students. *Adult Education Quarterly*, 65(3), 267-285.

Miller, K. E. (2020). The ethics of care and academic motherhood amid COVID-19. *Gender Work Organ* 2020, 1-6.

Nelson, M. (2020). Colour tribulations: A mothering-ArtAdemic in a pandemic : From academic motherhood and COVID-19 (Andrea O'Reilly, Ed.). *Journal of the Motherhood Initiative Double Issue*, 11(12), 1-27.

Nettles, M. T. (2006). *Three magic letters : getting to Ph.D.*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olasky, L. J., & Holahan, C. K. (1998). Maternal self-discrepancies, interrole conflict, and negative affect among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3), 388-401.

Prikhidko, A., & Haynes, C. (2018). Balancing graduate school and mothering: Is there a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13, 313-326.

Ridgeway C., & Correll S. J. (2004). Motherhood as a status characteristic. *Journal of Social Issues*, 60(4), 683-700.

Scharp, K. M., & Dorrance Hall, E. (2019). Reconsidering family closeness: A review and call for research on family distancing.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9(1). 1-14.

Stake, R. E. (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Denzin, N. K. & Lincoln, Y. S.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443-466). Thousand Oaks, CA: Sage.

Staniscuaski, F., Reichert, F., Werneck, F. P., de Oliveira, L., Mello-Carpes, P. B., Soletti, R. C., Almeida, C. I., Zandona, E., Ricachenevsky, F. K., Neumann, A., Schwartz, I. V. D.,

- Tamajusuku, A. S. K., Seixas, A., & Kmetzsch, L. (2020). Impact of COVID-19 on academic mothers. *Science*, 368(6492), 724-724.
- Sutherland, J. (2010). Mothering, guilt and shame. *Sociology Compass*, 4(5), 310-321.
-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rnat, M., & Lang, E. (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72.
- Vogel, L.(1993). *Mother On The Job*.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Williams, S. A. (2007). Graduate students/mothers negotiating academia and family life: Discourses, experiences, and alternativ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Wright, R. C., Partovi, N., & Levy, R. D. (2020).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Rapid implementation of virtual health care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a lung transplant clinic. *Clinical Transplantation*.

Abstract

**The Study on Women Being Pushed Out of
〈A Room of One's Own〉 Due to COVID-19***
- Focusing on the 'Academic and Child-Rearing'
Experience of Graduate Student Mothers

Hyein Oh**·Manjun Kim***·Cheong-ah Lee****·
Hakgeon Lee*****·Yesang Cho*****

As COVID-19 has swept the world, alienation and exclusion of graduate student mothers deepen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urden of care has aggravated, while their existence is not properly recognized. This study presents academic and child-rearing co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 mothers,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study found out that before COVID-19, graduate student mothers were typically experiencing hardship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ack of absolute time, emotional difficulties, motherhood not affordable of taking care of oneself, and absence of awareness and culture. After COVID-19, a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system became completely online-based, physical and time energy consumption have decreased, while work efficiency increased inducing additional income. However, graduate student mothers became the vulnerable group of people in a disaster, bound by the yoke of 'motherhood'; time resources available were further reduced, with exacerbated emotional difficulties. Diverse conflicts also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of Human Right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Hyein Oh,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Manjun Kim, MA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Cheong-ah Lee, MA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Hakgeon Lee, MA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Yesang Cho, MA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ccurred depending on supportable resources.

The study ends with propos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for the future. At the short-term level, seeking improvement regarding the access to the public facilities and academic systems that already exist is suggested; at the medium-term level, an official organization within the school i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continuous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At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need to construct a sustainable academic-parenting environment through m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approach is emphasized. In addition, amid the spread of COVID-19, extra institutional intervention for the society to bear care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an individual is suggested.

Keywords : Graduate Student Mother, Studying Mom, Study-Child Rearing Balance, COVID-19 Pandemic, Multiple Roles